

59년간의 설움, 벤투호가 날려버린다



2019 아시안컵 내일 개막...한국 7일 첫 경기
1960년 제2회 대회 3전 전승 우승 이후 무관

1960년 10월22일 경향신문에는 '또다시 아주축구(亞洲蹴球)의 왕좌점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한국축구가 중국을 물리치고 또 다시 아시아축구선수권을 차지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아시아 축구계의 왕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해 한국은 제2회 아시안컵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3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10월21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9분 터진 문정식의 결승골로 우승을 확정했다. 1, 2회 대회 우승컵을 모두 거머쥐며 경쟁국들을 압도한 한국은 이후 한 번도 정상과 연을 맺지 못했다. 4차례(1972년·1980년·1988년·2015년) 결승 진출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1986년을 시작으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 '아시아의 호랑이'로서 맹위를 떨친 것과 별개로 유독 아시안컵에만 나서면 작아졌다. 무관의 세월은 어느덧 59년째가 됐다. 이제는 멀어졌던 우승컵을 되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명예 회복의 무대는 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막하는 2019 AFC 아시안컵이다. 한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0순위다.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로 탈바꿈한 뒤 전력이 한층 안정된 데다 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부상으로 인한 이 탈 또한 없기 때문이다. 공격의 핵은 역시 손흥민(토트넘)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손흥민은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끈다. 토트넘과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합의에 따라 조별리그 초반 2경기에는 필 수 없지만,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토너먼트에서는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안게임 특점왕 출신 황희조(갑바 오사카)와 저돌적인 스타일의 공격수 황희찬(함부르크)도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중원에서는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는다. 사실상 마지막 아시안컵을 앞둔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이 그 주인공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이 끝난 뒤 대표팀 은퇴설까지 불거졌던 두 선수는 한국의 아시아 정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수비에서는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을 필두로 김민재(전북)와 정승현(가시마 엔블러스) 등이 호흡을 맞춘다. 2015년 호주 대회 결승 연장전에서 통탄의 실수로 결승골의 발미를 제공한 김진수(진

북) 역시 설움을 버리고 있다. 골문은 어느 때보다 든든하다. '월드컵 스타' 조현우(대구), 순발력이 좋은 김승규(비셀 고베), 제 공권 싸움에 강한 김진현(세레스 오사카) 등 세 선수 모두 수준급 이상의 실력을 자랑한다. 무관의 설움을 날려줄 이로 낙점된 벤투 감독은 차분한 마음으로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벤투 감독은 UAE로 출국하기에 앞서 "큰 대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대회에는 경쟁력 있는 상대가 많이 참가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준비해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은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과 C조에서 경합한다. 7일 두바이에서 필리핀과 첫 경기를 갖고 11일 알 아인으로 자리를 옮겨 키르기스스탄과 격돌한다. 조 1위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전은 16일 아부다비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는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옆 보조구장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광주FC 축구전용구장으로 개보수 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 축구계 숙원' 축구전용구장 건립...오는 12월말 완공 목표 추진

광주 축구계 오랜 숙원이었던 축구전용구장이 건립된다. 광주시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옆 보조구장을 광주FC 축구전용구장으로 개보수 한다고 3일 밝혔다.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설계용역과 시공업체 선정, 적격검사가 완료됐으며 다음 주 착공식을 갖고 본격 건립에 착수한다. 축구전용구장은 국비 38억원, 시비 84억원 등 총 12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층, 지상4층 연면적 4250.69㎡ 규모의 본부석 조성부터 시작된다. 또 1만석 규모의 관람석과 경기 운영시설, 광주FC 선수단 숙소 등이 들어선다. 연습전용구장은 염주체육관 인근 서항순 율리피제페기념 앙공장 부지에 건립되고 있으며 오는 5월 완

공된다. 연습구장은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 각각 1면씩 들어서며 현재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은 2002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해 종합경기장 방식으로 건립됐으며 수용인원은 4만명이다. 광주FC가 창단해 홈구장으로 사용했지만 클럽하우스 등이 없어 선수단은 목포 등 타지역을 떠돌며 생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되면 관중들은 가까운 곳에서 축구를 볼 수 있다"며 "선수단도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목포축구센터나 클럽하우스로 사용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손흥민 "토트넘에 무척 미안, 이미 9월에 자리 비웠기에"



2019 아시안컵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을 앞둔 손흥민(토트넘)이 토트넘 구단에 미안한 마음

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ESPN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미 9월

에 자리를 비웠었기에 무척 미안하다. 팀 동료들과 팬들, 코칭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 직후인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서느라 팀과 함께하지 못했다. 아시안 게임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차출 의무가 없지만, 토트넘은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을 배려해 출전을 허락했다. 손흥민이 급메달을 목에 걸면서 토트넘의 결정은 성공한 셈이 됐다. 아시안게임은 올 시즌 손흥민의 두 번째 장기 결장이다. 손흥민은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를 치른 뒤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에 오르면 손흥민은 다음달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을 포함해 최대 5경기를 놓치게 된다. 아시안컵 결승이 다음달 1일에 열리지만, 물리적으로 손흥민의 뉴캐슬진 출전은 어려운 전망이다. 모처럼 리그 우승의 기회를 잡은 토트넘 입장에서 최근 9경기에서 8골을 넣은 손흥민의 이탈이 반갑지 않다. 손흥민은 "슬픈 생각도 들지만, 이는 조국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정말 큰 대회다. 우리는 5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서 트로피를 향한 갈망을 내비쳤다. 2018 아시안게임에 소화한 뒤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손흥민은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안게임 이후 지쳤다 2~3일에 한 번씩 경기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아시안게임에서는 강해진 마인드와 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스

전남 드래곤즈, 클럽 사상최초 외국인 감독

파비아노 수아레즈 선임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구단 사상 최초 외국인 감독인 파비아노 수아레즈(53)를 선임했다. 전남은 2일 '브라질 1부리그 파라나인세 감독을 맡았던 수아레즈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전남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커리어는 화려하다. 수아레즈 감독은 스페인 3부 리그 데포르티바 폼포스텔라 감독을 거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포르투갈 프리메이리가 에스토랄에서 코치와 감독을 경험했다.



최고 수준의 지도자 자격증인 유럽축구연맹(UEFA) 프로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다. 전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주로 선수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하며 두 국가의 방법론이 적절하게 조화된 경험을 보유한 점, 브라질 국적으로 현재 K리그 외국인 선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선수에 대한 파악이 용이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영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순현=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온천, 장세마을, 화석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